

기업

美 '엑셀러레이션 연수'後 달라진 韓스타트업 전략은?

기사입력 : 2018-11-13 08:33 | 수정 : 2018-11-13 08:59

페이스북으로 기사 공유하기 트위터로 기사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기사 공유하기 댓글영역으로 이동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바이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8 개 기업 액트너랩 Global Action Partners(GAP)' 일원으로 2 주간 연수..글로벌 진출 투자 노하우 등 경험..22 일 데모데이 개최

"한국 스타트업 관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타트업 플라워메디칼의 고희진 대표가 전한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e2i program' 참여 소감이다.

고 대표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액트너랩, 그리고 8 개 스타트업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동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샌라몬에서 2 주간의 연수를 받았다.

이번에 참여한 기업은 플라워메디칼을 비롯해 ▲와인 ▲밸류앤드트러스트 ▲보비씨엔이 ▲페로카 ▲프로큐라티오 ▲디플리 ▲모어핑즈 등이다. 이들은 8 명의 전담 강사진과 현지 엔젤투자자, VC, 산업전문가로 이뤄진 28 명의 멘토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프리젠테이션, 투자유치, 법인 설립 및 세무, 회계, 마케팅, 규제 등 미국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망라한 'e2i program' 참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와 이스트베이 지역 코워킹스페이스 방문, 비즈니스 파트너사 방문, 해외 자체 데모데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라몬에서 열린 액트너랩 'Global Action Partners' 참가기업의 데모데이.

고 대표는 "실리콘밸리 등 현지 투자자를 만나면서 그들은 철저히 'Make Money'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정부 과제를 받기 위해 공공성 등 다양한 부분을 요구받는데 현지 사정과는 다른 것이다"면서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현지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제품 승인 받는게 쉽지 않다. 똑같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면 더 큰 시장인 미국 현지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면서 "미국에 진출하면 오히려 한국에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로카의 이인덕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과 성공을 맞본 현지 기업가, 투자자로부터 생생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현지 회계사, 변리사,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 IR 전략 등을 소개했다"면서 "현지 투자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페로카의 경우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IR 전략을 수정했고 실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THE VAULT'를 방문한 액트너랩 'Global Action Partners' 참가자들.

김달호 밸류앤드트러스트 이사는 "실리콘밸리 투자자, 창업자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밸류업 모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현지는

M&A 모델이 발전돼 있었다. 현지 법인 설립 절차, 세법, 현지 투자자가 좋아하는 포인트, IR 방법 등을 교육받은게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보비씨앤이의 인영용 이사는 "수차례 창업과 엑시트를 한 강사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강의가 좋았고 다른 그룹의 IR 발표를 하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참석기업들은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액트너랩의 이번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한 8개 스타트업은 이달 중순 그동안의 성과와 기업을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갖는다. 행사는 22일 오후 3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 지하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된다.

2018 Global Action Partners의 BIO&Digital Healthcare 분야의 가장 빛나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합니다.

 <p>Flower Medical</p> <p>㈜플라워메디칼 병원에서 질병감사를 위해 조직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p>	 <p>FEROKA</p> <p>㈜페로카 정량투여, release 순서와 속도 제어가 가능해 의료 목적 사용이 가능한 마이크로니들</p>	<p>(주)디플리</p> <p>㈜디플리 AI 기술을 이용한 웨이비 소리 분석 솔루션</p>
<p>보비씨앤이(주)</p> <p>보비씨앤이(주) Oyster 패각칼슘 이용 항산화 및 항노화 기능성 바이오 원료물</p>	 <p>PROCURATIO</p> <p>㈜프로큐라티오 이상반응관리 솔루션 '프로케어노드'</p>	 <p>(주)와인 Young Innovative Company</p> <p>㈜와인 화학기상증착방식(CVD)을 이용한 고분자 기능성 코팅 및 제품개발</p>
<p>밸류앤드트러스트(주)</p> <p>밸류앤드트러스트(주) 척추 커브 진단 및 교정에 대한 솔루션</p>	<p>(주)모어이즈모어</p> <p>㈜모어이즈모어 다채널/대면적 센서를 활용한 보행분석 솔루션</p>	

<저작권자 © 바이오스펙테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os.co.kr